



1958년 제5회 대회 일반부 3위를 차지한 김용인(당시 전남대)씨가 화순경찰서 앞 광장을 돌아 너릿재 내리막길에서 역주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반세기를 달렸다... 뛰는 족족 역사가 됐다

광주일보 3·1 마라톤 50년

호남 유일 정통 마라톤

올해 50회를 맞는 '3·1절 전국마라톤대회'는 호남의 역사와 함께 달려왔다.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3·1절 전국 마라톤대회가 다음달 1일 50번째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 대회는 반세기를 달려온 호남 마라톤의 빛나는 역사다. 광주일보는 3·1절 마라톤 50년을 맞아 '호남 유일의 정통 마라톤 대회 전환'을 선언했다. 역사적인 첫 총성은 지난 1954년 3월7일 정오에 울렸다. 광주일보의 전신인 옛 전남일보의 명칭을 딴 '3·1절 기념 전일단축마라톤대회'가 시작점이었다. 당시 출발선에 선 사람은 54명. 이들은 옛 전남일보(현 금남로5가 덕영빌딩)를 출발해 화순경찰서 앞 사거리를 돌아 32km를

1954년 금남로서 첫 '총성' 5·16 소용돌이 속 잠정 중단도 1970년 이후 시·도민 축제로 국가대표 김재룡 등 스타 배출

달려 결승선으로 들어왔다. 굴곡진 변화의 시대상도 대회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1963년 10회 대회는 5·16군사정변 후 군정 연장 반대 데모 등으로 인해 개최일이 3월 23일에서 30일로 연기돼 치러졌다. 이후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 대회는 잠정 중단됐다. 3·1절 마라톤의 부활은 1969년 벨기에 국제마라톤대회에 계기가 됐다. 당시 오스트레일리아의 클레이턴이 2시간8분53초6으로 세계신기록을 세운 것에 반해 한국의 기록은 2시간18분대에 머물며 마라



1981년 22회 대회에서 당시 문창수 전남도지사가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에서 출발 총성을 울리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톤 재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1964년부터 1969년까지 중단됐던 대회가 1970년 '3·1절 기념 전일 단축마라톤대회'로 부활한 것이다. 다시 시작된 3·1 마라톤은 광주~화순간이 아닌 광주~송정간 코스로 거듭 났

다. 대회 처음으로 초등부 학생과 여자 선수가 참가하면서, 10세의 최연소 참가자부터 64세 최고령 참가자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도심을 달렸다. 1980년 정국의 바람은 다시 대회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의 지방 1도1사(一道一社) 정책에 따른 신문사 강제 통합으로 옛 전남일보와 구 전남매일신문사가 광주일보가 됐고, 대회 명칭 역시 광일단축마라톤대회로 변경됐다. 옛 전남도청(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대회 첫 출발 총성이 울렸던 3·1 마라톤의 상징적인 장소이다.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시작했던 풀코스 질주가 지난 2012년 인권·민주화의 중심지인 옛 전남도청으로 스타트 라인을 옮기면서 도심을 달리는 명품 코스가 됐다. 반세기에 걸친 역사만큼 마라톤 스타도 많이 배출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태극마크를 달았던 김재룡과 LA 올림픽 국가대표 김원식이 3·1 마라톤 제패를 통해 호남 마라톤의 저력을 알렸다. <관련기사 21면>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영암~인천 서해안 벨트 중국 진출 교두보 만든다

서남해안 기업도시 '탄력'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계기로 영암 등 국도의 서해안 벨트에 중국 시장 진출을 노리는 기업을 대거 유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로에 선 전남도의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사업(프로젝트)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지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서해안 도시를 5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한·중 FTA 체결 이후 중국 진출을 위해 한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려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관계자들과 민간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재까지 10차례 이상 회의를 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인천과 평택, 군산, 영암을 잇는 라인이 구상되고 있다. 인천과 군산(새만금)에는 경제자유구역이 있고 특히 새만금에는 한·중 경험단지 조성이 논의되고 있다. 평택에는 대규모 항구가 있고 영암은 해남과 함께 서남해안

기업도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일단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민간투자 기업이 없어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서남해안 기업도시사업에 상당한 자극을 줄 전망이다. 특히 삼포지구 내 F1경주장을 중심으로 들어설 예정인 자동차 튜닝 및 고급 부품단지가 가장 먼저 혜택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전남도는 이 단지 내에 관련 기업 100여개를 유치할 방침이다. 또 81호의 골프장과 스포츠·레저단지 등으로 구성되는 삼호지구와 100호가 넘는 골프장, 산재생 및 바이오 시설, 의료시설, 컨벤션센터, 마리아, 승마장, 남도음식문화촌, 워터파크, 휴양 숙박시설 등이 들어설 구성지구에도 '중국 수요'를 감안한 국내외 업체들의 입찰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서해안 지역을 중국 진출을 노리는 기업들이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업 유치를 위한 교통, 통신 등 기초적인 인프라는 거의 다 마련돼 있어 제도적 지원장치만 만들면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입 통관 간소화, 건축·노동·출입국 규제 완화,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등을 기업별, 업종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윤현석기자chadol@연합뉴스



홍매 꽃망울 '톡톡'...봄이 오는 소리 긴 설 연휴 마지막날인 22일 불기운이 완연한 광주시 북구 중외공원에서 꽃망울을 터뜨린 홍매화가 지나는 행인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靑 비서실장 빠르면 오늘 인선...국정기조 시험대

국토·통일·해수부장관 교체 금융위원장 보성출신 임종룡

박근혜 대통령이 공석인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을 오는 25일 이전에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여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부분개각시 설연휴 이후로 미뤄던 비서실장 인사를 정부 출범 2년

을 맞는 25일 이전에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3면> 일부 소식통들은 박 대통령이 사실상 차기 비서실장을 낙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여전히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특히 어떤 유형의 인사를 비서실장에 낙점하는가는 향후 국정운영 기조와 맞물린 사안인어서 박 대통령으로서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이완구 신임총리의 제정을 받아 통일부장관에 홍용표 청와대 통일비서관, 국토교통부장관에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 공석인 해양수산부장관에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에 보성 출신인 임종룡 농협금융지주회장을 각각 내정하는 등 4개 부처 장관(급)에 대한 개각인사를 단행했다. 또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번 개각에서 친박계 국회의원이 2명

입각함에 따라 총리와 장관 18명 가운데 3분의 1인 6명이 국회의원이거나 정치인들로 채워져 박 대통령의 친정체제가 더욱 강화됐다는 평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사람중심·생명존중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당신의 작은 배려가 선진 교통공동체를 만듭니다!

- 운전자를 배려하는 '방향지시등 사용'
- 보행자를 배려하는 '정지선 지키기'
- 통행인을 배려하는 '무단횡단 안하기'